

한경국립대-두원공대, 2025년 GCN-RISE FESTA 개최

윤 봉원학 기자 | 승인 2026.02.25 06:00

- 경기 탄소중립(Gyeonggi Carbon Neutral) 지산학 얼라이언스 구축 추진
- 경기 남부(안성)와 북부(파주) 지역산업 연결 지산학 혁신모델 구축



한경국립대학교(총장 김찬기)는 24일, 안성캠퍼스 지역문화복합관에서 GCN-RISE사업 소개 및 성과 공유를 위한 ‘2025년 GCN-RISE FESTA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 사업은 한경국립대와 두원공과대가 컨소시엄으로 수행하는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사업의 일환이며, 경기도 탄소중립, 바이오에너지, 반도체/소부장 기술 및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농축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경기 남북부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.

이번 행사로 한경국립대는 두원공과대와의 사업 추진력을 강화하고, 지역(안성시, 파주시), 산업계(㈜미코, ㈜KEC시스템, ㈜KCTech), 공공기관(축산환경관리원, 안성상공회의소,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), 연구소(고등기술연구원, 나노종합기술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), 민간단체(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)와 함께 경기도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및 지역기반산업 고도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 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.

한경국립대 GCN-RISE 사업단장(윤영만 교수)은 “이번 행사는 대학 간 협력을 넘어 지역혁신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학과 지역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”며, “앞으로 GCN-RISE 사업단은 지역기반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한경국립대학교는 GCN-RISE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남부와 북부권의 지역 기반 산업을 연결하고, 지역인재 육성·취·창업-정주 여건 조성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혁신 거점 대학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.